

2015년도 공모사업 문학 및 연극 분야 심의 총평

연극 분야

- 일시 : 2015. 03. 20(금) 15:00~17: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 심의위원 : 서재형, 백로라, 정명주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연극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등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사업의 총 신청건수는 51건이었으며 신청 총액은 1,725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사무처에서 심의 전 발송한 신청자들의 서류들을 심의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 회의에서는 신청 사업에 대하여 특이점과 위원별 각자 의견을 나누는 후 종합적인 논의를 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다.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지원 사업 연극분과에는 총 1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5건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의 심의기준을 기본으로 검토하면서 심층 토론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층 토론 과정에서 연극 분야 비평·연구의 영역에서 축적된 실적과 전문성이 있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한국연극, 공연과이론, 연극평론, 공연과리뷰의 경우 연극 전문 발간지로서의 전통과 성과를 인정하여 지속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예년 수준의 지원금을 유지하였다. 개인의 경우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출간 및 배포를 위한 실비 위주로 지원금을 결정하였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연극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3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8건을 선정하였다.

연극분야에 배정된 예산의 규모가 총 신청예산에 비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류조건이 양호하고 사업계획이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심의기준으로 제시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구체적인 실현가능

성, 해외 파트너기관/단체의 신뢰도, 국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신청사업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기대되는 사업성과, 그리고 올해의 특이 이슈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교류사업의 성격이 '커뮤니티' 등의 한정된 관객의 수용을 우선으로 하거나 창작과정 성격의 사업보다는 해외 협력파트너의 신뢰도와 교류조건이 양호한 사업들이 보다 많이 선정되었다. 지원 금액의 결정은 해외개최사업의 경우 항공료, 운송료 등 예비 중심의 직접 경비를 배정하였으나 한정된 예산규모로 인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연극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6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건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 역시 예산의 한계로 인해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과 동시 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경우는 사업의 구체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두 유형 중 하나의 사업만을 선정하였으며, 기획프로젝트의 취지는 기대되나, 예술적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은 2016~17년도의 사업의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결과물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15년 준비활동방향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당초 계획했던 본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